

목포·완도 등 전남 항구, 중국인 밀입국 루트 '비상'

무비자 제주 입국후 뱃길로 몰래 들어와 불법체류 급증 속 보안검색 시스템 허술

완도·목포항 등 전남지역 항구가 외국인들의 쉬운 밀입국(무단이탈) 루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로 들어온 뒤 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국시스템이 허술한 목포·완도 등 항만을 통해 몰래 들어와 불법체류하는 루트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대표적 밀입국 통로로 소개되는 실정인데도, 해양수산부 등 당국은 인력·시설 등 허점을 보완하기는 커녕, 예산 타당성도 높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자 없이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수는 ▲2012년 23만2929명 ▲2013년 42만9221명 ▲2014년 64만5154명 등 모두 130만7304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제주도를 찾았다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도 371명(2012년)→731명(2013년)→1450명(2014년)으로 급증했다. 법무부는 그나마 사증 없이 입국한 뒤 30일간의 체류기간을 넘긴 채 불법체류자들 중 1684명은 여태껏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목포·완도항을 거쳐 몰래 들어온 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취업한 것으



중국인 밀입국 경로는
1. 백기요를 전담으로 중국
2. 백기요를 전담으로 목포·완도
3. 무비자로 제주입국

·무비자 입국 현황
2008년 2만3354명 → 2014년 64만 5154명

·체류기간 초과자
371명(2012년)→731명(2013년)→1450명(2014년)

·불법체류자 검거
94명(2012년)→172명(2013년)→602명(2014년)

로 추정하고 있다.

법무부 등은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외국인들이 사증 없이 제주도로 들어온 뒤 허술한 검색장비와 인력 등으로 잡입하기 쉬운 목포·완도 등을 거쳐 국내로 밀입국한 뒤 불법체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서 차량 루프백스에 숨여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A(52)씨 등 2명은 해경 조사에서 "중국 터미널 등에는 600~1000만원을 지급하면 한국 불법 체류를 알선해준다는 광고가 가득하다"면서 "공항에 비해 검색이 허술한 배편으로 밀입국이 훨씬 쉽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싸다"고 말했다.

예컨대 제주항만 하더라도 7곳의 차량

검색대 중 X-레이 투시기는 한 곳에 한 설치·운영중이며 이마저도 목포·완도 등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객전용 게이트가 아닌, 화물차나 차량 루프백스 등에 숨여 밀입국하다 적발되는 외국인들도 늘어나면서 보안체계를 강화·재정비하는 등 느슨한 입국심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예산 타당성도 높고 뺏아 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완도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누군가) 무단이탈을 시도한다는 정보가 없으면 단속을 하지 않는다. 제주항만 통과하면 이들을 적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사실상 신고에 의존한 검색을 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해경 부실구조 현장검증 없던 일로

법원 "요건 맞추기 어려워"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상황을 재연(再演)하는, 법원의 '현장 검증'이 없던 일로 됐다. 당시 상황과 유사한 조건을 갖추기가 여의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현장 검증 미실시로 인해 혐의 입증 과정에서 유·불리가 엇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목포해경 123명 정장 김경일 경위에 대한 2회 공판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조건과 비슷한 현장 상황을 구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애초 계획했던 현장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혐기가 떠 있는 상황에서 목포해경 123명이 확성기를 통해 선내 승객들을 대상으로 퇴선 방송을 실시할 경우 얼마나 많은 승객들에게 전달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계획했다. 세월호와 비슷한 규모의 배를 띄우고 헬기와 경비정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됐었다. 하지만 당시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자칫 침몰 상황과 동떨어진 현장 검증으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면서 결국 검증이 없던 일로 됐다.

한편, 김 경위는 지난 4월 16일 오전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명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거나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지하철 분실물 80% '주인 찾았네'

출퇴근길에 서두르다가, 피곤함에 깜빡 풀다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서... 깜빡 잊고 지하철 안에 소중함 물품을 놔두고 오는 경우는 많다. 유실물의 종류도 고물·쓰레기·음식물 등 다양하다. 이중엔 기상천외한 물품도 있다.

그렇다면 지난해 광주지하철에서 유실된 물품은 어떤 것들일까.

21일 광주시 도시철도공사에서 내놓은 유실물처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승객이 물건을 두고 내려 유실물센터에 접수된 분실물 접수건수는 모두 618건.

이중엔 우산·종이가방(소피백)·지갑·장갑·모자 등 일반적인 소지품이 대

부분이지만 생각지도 못한 기상천외한 유실물도 있다. 틀니·팬티스타킹이다. 틀니는 지난해 7월 소태역 화장실에서 발견된 뒤 당일 주인인 80대 할머니의 품으로 돌아갔으나 팬티스타킹은 유실물센터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소지품 주인의 직업과 관련된 유실물도 많다. 마네킹 머리와 가발·트럼펫·구직 서류·대학생 책가방·일용직 근로자 작업복·의사 가운 등이다. 깜빡 잊어버린 자신의 물품을 슬쩍 놔두고 가는 고객의 실수는 유실물(?)도 많다.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파손된 우산·현 신발·현우·화장품 빈용기 등이다. 수

작년 분실물 618건 달해 마네킹에 틀니까지 다양

군과 고의로 버리고 간 물건인 줄 알면서도 훔쳐 주인이 찾아올 경우에 대비, 공장 폐기처분하지 못하고 내부지침에 따라 일주일 간 보관한 뒤 처리한다는 게 도시철도공사 측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분실물 618건 중 주인을 되찾은 경우는 79.5%인 514건. 이는 지난 2013년 반환율 75%(821건→616건)보다 4.5%p 높은 수치다. 유실물 종류별로는 전자제품(휴대전화 등)이 1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가방 71건 ▲의류 18건 ▲현금 11건 ▲귀중품 5건 등의 순이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답답한 軍... 탈영병 수색 일주일째 답보

목포 북항서 사람형태 물체 포착 확인 나서

군과 경찰이 31사단 소속 이모(21) 일병의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특히 일주일 가깝게 해당 사건의 단서조차 찾지 못하는 군 당국의 무능력함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21일 육군 제 31보병사단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께 목포시 북항 인근 해안에서 수중 음파탐지기로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물체가 확인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당 물체는 이 일병 근무지로부터

4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군은 40명의 특전사 인원을 동원해 조류에 따라 흘러가고 있는 물체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170명을 투입해 해안가 수색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군과 경찰은 또 근무지 일대에 설치된 42개소 CCTV 외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영광 군남농협 조합장 등 3명 배임 혐의 입건

영광경찰은 21일 근무하는 농협에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군남농협 조합장 A(51)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미국종합처리장 대표 B(56)씨는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B씨와 15억원 상당의 벼 가공처리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무시해 농협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실한 계약으로 농협측이 입은

손해가 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해당 농협 상무는 최근 위·수탁 계약을 담당하면서 3월 예정된 감사에서 부실 계약 내용이 드러날까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경찰은 이의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의혹 등을 집중 조사중이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kwangju.co.kr



겨울비 우산행렬. 추운 겨울비가 내린 21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인근 횡단보도에 우산을 쓴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배우 류시원 결혼 5년만에 파경

배우 류시원 결혼 5년만에 파경. 류씨의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데 이어 부인을 상대로 주먹까지 휘둘러 구설에 오른 배우 류시원이 결혼 5년만에 파경.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류씨의 부인 조모씨(류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류씨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조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는 등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류씨는 지난 2010년 조씨와 결혼했지만 2년여 뒤 이혼 절차에 들어간 후 2013년에는 부인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데 이어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순탄치 못한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결국 이혼. /연합뉴스

월산동 지하 1층 지상 4층 상가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19번지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델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지하 - 51평, 상가
1층 - 41평 상가
2층 - 46평, 사무실
3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4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 시세 및 감정가 7억 5천만원

■ 매매가 6억 5천만원 (웅 3억8천만원 포함, 보 1억에 월 350만 가능)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울 수리

■ 주인 직매 H. 010-3605-5000

장성 다음빌라 32평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749-13번지
4층중 3층, 정남향
광주에서 30분 거리
현재 전세 4500만원 임대중
급매 5500만원(즉시 입주)

빌라 매매

주인 직매 H. 010-3605-5000

광천파크 빌라 34평

광주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5층중 3층, 신축, 정남향
시세 및 감정가 - 1억 9천만원
신우APT 부근, 즉시 입주가
급매 1억 5500만원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광덕교차로에서 5분거리
328평, 33필지 중 1
택지조성 중(화순 군청)
2015년 5월 완공 예정
매매 1억 3120만원
주인 직매 H. 010-3605-5000